

과기정통부, K-OTT 투자유치 지원으로 해외 진출 가속화

- ‘투자유치 쇼케이스’ 성황리에 종료, 공모 신청 전년 대비 증가
- 올해 ‘부총리상’ 신설, 미디어테크·우수기획안 부문 총 2개 기업 수상 영예, 미디어테크((주)웨스트월드), 우수기획안(테이크원컴퍼니)
- 워너브라더스, 라쿠텐비키 등 30여 개 국내외 투자사 참여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 진행

【관련 국정과제】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중심 전환 및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스트리밍·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스트리밍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국내외 업계 관계자 및 관람객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투자유치 쇼케이스’가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양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쇼케이스는 혁신적인 미디어 기술과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함으로써 투자 매칭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 AI 서비스, ▲ 버추얼 프로덕션, ▲ 현지화 등 미디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테크 부문과 OTT 플랫폼 송출을 원하는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유 기업 대상의 우수기획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올해 공모에는 미디어테크 부문 23개 사, 우수기획안 부문 15개 사(18개 기획안) 등 총 38개 사가 신청하여 부문별 경쟁을 통해 미디어테크 부문 10개 기업과 우수기획안 부문 9개 기업(10개 기획안)이 쇼케이스 현장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다.

< 투자유치 쇼케이스 부문별 선정기업명 >

부문	기업명(가나다순)
미디어테크	△데이크원컴퍼니, △텍스터스튜디오, △디케, △벤티엑스, △스튜디오 메타케이, △웨스트월드, △이모션웨이브, △큐브베리, △트위그팜, △포바이포
우수기획안	△AK엔터테인먼트, △강컨텐츠, △노바스퀘어, △달항아리스튜디오, △데이크원컴퍼니, △딜라이브TV(2편), △스튜디오이온, △큐브베리, △키이스트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박윤규)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평가 기준을 차별화했다. 미디어테크 부문은 해외사업 수행 역량, 기술 경쟁력,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사업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우수기획안 부문은 기획의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수상기업은 참가기업 선정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됐으며, 현장평가는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과 실무적 평가를 반영하고자 국내외 투자사와 바이어가 직접 참여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 투자유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참가기업의 우수 성과를 독려하고 행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부총리상’을 신설했다. 미디어테크 부문에서는 ‘(주)웨스트월드’, 우수기획안 부문에서는 ‘데이크원컴퍼니’가 최종 선정되어 과기정통부가 수여하는 부총리상의 첫 주인공이 되었다.

미디어테크 부문 수상기업인 ‘(주)웨스트월드’는 시각특수효과를 비롯해 버추얼 프로덕션 등 콘텐츠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우수기획안 부문 수상기업인 ‘데이크원컴퍼니’는 독창적인 스토리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춘 콘텐츠 기획안을 선보여 투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 IMM인베스트먼트, ▲ LG유플러스, ▲ 라쿠텐 비키(Rakuten Viki) 등 30여 개 **국내의 유수의 투자사와 바이어가 참여해 참가기업들과 1:1 투자 상담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해외 진출과 투자 연계 가능성을 한층 높였으며**, 인도계 벤처캐피탈인 삼산벤처스와 우수기획안 수상기업인 테이크원컴퍼니의 투자의향서 체결을 포함해 총 3건의 투자의향서가 현장에서 성사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올해 페스티벌은 투자유치 쇼케이스 외에도 ▲ 국제 스트리밍 (OTT·FAST) 서밋, ▲ 글로벌 OTT 어워즈, ▲ 플랫폼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스트리밍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 축제의 장이 되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페스티벌과 쇼케이스 성과를 발판 삼아, 국내 우수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디지털플랫폼팀	책임자	팀 장	곽 미 경 (044-202-6630)
		담당자	사무관	백 창 훈 (044-202-6636)
관련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상융합산업팀	책임자	팀 장	박 근 하 (043-931-5630)
		담당자	책 임	임 슬 아 (043-931-5632)

